

# 전북미래교육 전환 '신호탄'

### 도교육청, 2023학년도 미래준비학교 공모 계획 안내 기초학력 보장 강화 등에 힘쓴 학교가 우선 선정 대상 16일 공모 설명회... 신청 거쳐 내달 17일 최종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일 도내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2023학년도 전북미래준비학교 공모 계획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전북미래준비학교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1년간 운영하며, 2024학년도부터 전북미래준비학교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학교다. 이에 올해 공모를 통해 1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미래준비학교는 2022년 10월 선

정한 신규 혁신학교와 혁신+학교(전북미래학교) 19개교를 포함한 총 86개교(초 48교, 중 22교, 고 16교)로,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의 시범적 모델학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전북미래준비학교는 △학생 기초학력 보장 강화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교실혁명을 위한 수업혁신을 위한 노력 등에 힘쓰고 있는 학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오는 16일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 컨벤션홀 2층에서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북미래학교 공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2월 중 공모 신청과 심사를 거쳐 2월 17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미래교육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전북미래준비학교가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업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2023학년도 평준화일반고 합격자 발표

### 도내 1만78명 10일 학교 배정... 합격자 등록기간은 16~19일

올해 전주, 군산, 익산 등의 평준화 지역 일반고 불합격자가 총 177명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8일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학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 여부는 소속 중학교,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e.gakr>), 전북고입전형포털(<http://sapt.je.ga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평준화일반고 신입생 모집정원은 총 1만78명으로, 지원자는 1만255명이었다. 이중 전주 6,244명, 군산 1,944명, 익산

1,890명이 합격했으며, 불합격자는 전주 74명, 군산 74명, 익산 29명이다. 다만, 전체 지원자 1만255명은 평준화일반고 중복지원이 가능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합격자 197명을 제외한 숫자다. 정원 외 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특례입학대상자)는 별도 선발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오는 10일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서거석 교육감, 도의회 교육위원장, 학부모·학생·인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평준화일반고 합격자 학교배정 공개 추첨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관을 희망하는 학

생·학부모는 사전 신청일이 참여할 수 있다. 학교배정 결과 발표는 13일 오후 2시 소속 중학교,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e.gakr>), 전북고입전형포털(<http://sapt.je.g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정된 학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전기·후기 합격자의 모집 등록기간은 16~19일까지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고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 한편 평준화지역 39개교를 제외한 94개 학교 중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2월 2~3일 이틀간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군산대 대학발전기금을 제1호 기부자 탄생

### 송해업 교수, 800만원 전달

국립군산대학교 송해업 기획부처장(미디어문화학과 교수)이 최근 대학본부 총장접견실에서 군산대학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800만원을 이장호 총장에게 전달했다. 송해업 부처장이 전달한 발전기금은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장학금 및 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해업 부처장은 "군산대학교는 학생복지와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갖추는 데 최우선을 두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학생들이 좀 더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국립군산대학교 송해업 기획부처장이 최근 대학본부 총장접견실에서 군산대학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800만 원을 이장호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장호 총장은 "제자를 아끼는 스승의 이런 마음이 모여 사제간의 정이 더욱 깊어진다"면서, "2023년 제1호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셔서 고맙고, 이

발전기금이 미중음이 되어 2023년도 대학을 위한 발전기금 릴레이가 계속 되길 바란다"며 감사사를 표했다. /군산=김광근 기자

# '이야기로 세상을 채우자' ... 새 인문학 전문가 양성 앞장

### 국립군산대 국어국문학과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다채로운 콘텐츠 시대를 맞이하여 '이야기로 세상을 채우자'는 목표로 하여 새로운 인문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문학콘텐츠 기획자, 스토리텔링 전문가, 웹리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어국문학과 전공 인재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글과 이야기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졸업생들이 방송작가와 웹소설 작가·기획자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로 진출한 결과가 입증되며,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인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창의적 교육을 실현 중이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문학, 영상문학(드라마, 영화, 시나리오) 및 웹

라이팅까지 언어와 이야기의 존재 양상을 전문적으로 탐구하는 다양한 교과를 운영 중이다. 영상문학과 웹리더링 교과를 운영 중인 이다은 교수는 "전공 지식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의 서사를 구성하는 스토리텔링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며 국어국문학과에 무한한 가능성을 피력했다.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또 다른 특성은 언어와 글에 관한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데 있다. 국어국문학과는 매체와 글쓰기, 일상생활과 글쓰기처럼 특화된 실무 교과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뛰어난 글쓰기 능력을 갖추어 직업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 결과 국어국문학과 재학생은 일반적인 공무원(사무)직은 물론이고 여러 전문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장르의 글을 실무자 수준으로 작성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은 방송작가, 콘텐츠 기획자, 인문학 연구원, 공무원, 교직원, 한국어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이 밖에도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은 공기업을 진출하거나 출판 편집자, 카피라이터, 문학 지도사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국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교사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국어국문학과는 작가세미나, 학술답사, 논문발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며 유명 작가와 실무자를 초청하여 진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무엇보다 언어와 이야기의 존재 양상을 전문적으로 탐구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자'를 꿈꾼다면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추천한다. /군산=김광근 기자

# 농산업융합 전문인력 양성

### 전북대 부안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2023학년도 신입생 30명 모집... 내달 3일까지

부안군은 전북대학교 부안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2023학년도 신입생 30명을 오는 2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는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융합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군과 전북대가 협약을 맺고 지난 2021년 신설됐으며 올해로 세 번째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차와 2차에 나눠 진행되며 1차 모집기간은 오는 13일 까지, 2차 모집기간은 오는 30일부

터 2월 3일까지이다. 지원지역은 농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전북 내 농수산업·식품 산업체 종사자 및 농수산업 1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졸업 시 전북대 농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및 농업정책과 농촌협력팀(☎ 063-580-4882) 또는 전북대학교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사무실(☎ 063-581-256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소통으로 디지털 대전환시대 생체역학 선도사업 발굴"

### 전북대 권대규 교수 생체역학회 신입 회장에

전북대학교 권대규 교수(바이오메디컬공학부)가 (사)대한생체역학회 신입 회장에 취임했다고 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사)대한생체역학회는 2001년 생체역학회연구회를 모태로 2007년 10월 생체역학회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 출범했다. 생체역학은 인체 혹은 생명체(bio)의 역학(mechanics) 즉, 구조와 동작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근골격계 생체역학, 정형외과 생체역학, 재활공학, 임플란트와 보장구 공학, 심혈관 생체역학, 생체유체역학, 계산생체역학, 세포역학, 스포츠 생체역학 등 적용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권대규 교수는 "지속적인 학술대회 개최, 생체역학 분야 기업과의 산학협력 교류와 연구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생체역학분야를 선도할 사업 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권 교수는 전북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북대학에서 기계전자공학전공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4년부터 전북대 공과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학생들이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제12권 3호에 학술논문을 게재했다. 사진은 2022년 전국 대학 보험관련학과 연합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학생들, 학술논문 게재

### '보험회사 ESG 활동 소비자 만족도·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 제12권 3호에 연구 투고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선정안, 양주안, 이상상 조하진 학생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제12권 3호에 학술논문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한국의 금융시장 및 산업에서 금융소비자 문제를 객관적·중립적으로 연구하는 학회로, 매년 4월, 8월, 12월 총 3차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금융소비자연구를 발행한다. 최근 발행된 금융소비자연구 제12권 3호에 금융보험학과 학생들이 보험회사 ESG 활동이 소비자 만족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투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2022년 전국 대학 보험관련학과 연합학술대회에서 우수상 받은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큰 기

업의 ESG 경영 활동과 그 효과를 보험회사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례연구와 실증연구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ESG 경영활동은 보험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으며, 또 보험회사의 ESG 경영 실천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보험회사 ESG 활동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논문을 지도한 이현복 교수는 "금융보험학과 학생들의 전공 분야에 대한 뛰어난 열정과 탐구 의지로 가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선정안 양주안, 이상상 조하진 학생은 "금융소비자연구라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게 돼 기쁘고, 재학 중에 있지 못한 추억을 만들게 돼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원광대 석승한 교수

### 노인신경의학회회장 연임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의과대학 석승한(사진) 교수가 2021년부터 2년간 제7대 대한노인신경의학회회장을 지내던 이어 제8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돼 내년 12월까지 회장직을 연임한다.



석 교수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인 의료기판평가인증위원, 원광대학교 운영 안(사)립노년전문병원장 및 안산시 뇌졸중·치매 예방사업단장 대한치매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북대 정원균 대학원생

### 대한환경공학과 학술논문상

BK21 FOUR 글로벌자립순환경연구단에 참여한 이 정원은 전북대학교 정원균 대학원생(환경에너지융합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백기태)이 최근 열린 2022년도 대한환경공학회에서 학술대회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학술대회에서 정원균 학생은 CaO 기반 전기화학적 Fenton 산화를 통한 지하수 내 1,2-dichloroethane의 분해 주제를 주제로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연구는 과산화수소(H<sub>2</sub>O<sub>2</sub>)와 전기화학적 산화반응을 결합해 지하수 내 존재하는 염소계유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1,2-다이클로로에테인(1,2-dichloroethane)의 제거 성능을 평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CaO 기반 전기화학학적 Fenton 반응을 이용해 지하수 내 존재하는 유기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지하수 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균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CaO 기반 전기화학적 Fenton 산화의 추가적인 연구 및 다양한 정화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군산 한 초교서 전교회장 당선자 조작 의혹

### 지난해 12월 29일 3·4·5학년 학생 109명 대상 임원선거 3표차로 당선 발표... 학부모 이의제기하자 당선 정정 공지

군산의 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에서 현직 교사가 당선자 순위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4·5학년 학생 109명을 대상으로 전교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학교 측은 회장 후보자 2명 가운데 56표를 받은 A군이 53표를 받은 B양을 누르고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 학부모가 회장과 부회장의 투표 결과지가 다른 점을 인지하고

지난 2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투표순위가 바뀐 점을 뒤늦게 확인 지난 3일 B양을 전교회장으로 정정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담당 교사가 임의로 결과지를 만들어 순위를 바꾼 것으로 보고자사에 나선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순위가 뒤바뀐 것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이뤄진 것 같다"면서 "현재 해당 교사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